

# 광주경총, 폭염·폭우 소상공인 돕기 나섰다

### 임직원에 골목경제 살리기 독려...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나서 회원사에 임대료 인하·납부 유예 등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권고

광주경총(광주경총)이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생존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어려움에 빠진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 등에 나서고 있다.

6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회원사 대표 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극한 기상 여건 속 밀려든 침수 피해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이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놓였다. 지역경제의 온정 어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회원사들의 소비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받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쿠폰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점심 식사나 회식 등 기업의 '일상 소비' 또한 피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과 사내 캠페인 등의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도 함께 당부했다.

광주경총은 회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뉴밀레니엄시민장터를 찾아 물품 등을 구입하고,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광주경총은 또 회원사 중 상가 임대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도 권고했다. 임대료 인하나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피해 상인이 당장의 운영 부담을 덜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

생 협력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광주경총의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고금리에 기습 폭우까지 겹치며 민생경제의 숨통이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나왔다. 점에서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최근 고물가 길이 팽팽 얼어붙으며 하루하루 버티기는 물론 복구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경총은 "침수 피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의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작은 소비가 모여 한 가계를 살리고 골목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 경제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가 본격적인 반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회원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경총회원사 직원들이 6일 광주시 광산구 뉴밀레니엄시민장터에서 채소 등을 사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 광주·전남중기청, 함평 천지전통시장 수해 복구 돕는다

### 원스톱 합동 현장지원반 운영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 천지전통시장에 '원스톱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천지전통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41개 점포와 인근 골목형 상점이 27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장 지원반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원반은 지난 4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천지전통시장을 찾아 이틀간 시장 내 전열대, 집기류 등을 청소하고 바닥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

이날부터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현장 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원스톱 합동 현장지원반'이 6일 함평 천지전통시장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원반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서 발급 지원을 안내 중이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4대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 안내도 병행한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 청장은 "상인들이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광주·전남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상주해 상담·애로 해결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농경연 "수박·복숭아·토마토 가격 오를 듯"

### 농업관측 보고서 8월호 발간...소비 증가·폭염 영향

이번달 수박과 복숭아, 토마토 등 주요 과채와 과일 가격이 평년보다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평년 가격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6일 '농업관측 8월호' 보고서를 통해 수박(상품) 도매가격이 1kg에 3100원으로 평년보다 17.4% 비싸고, 1년 전보다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여름철 고

온이 지속되고 복숭아, 포도 등 대체 과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박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농경연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도 수박 소비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토마토 도매가격은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5kg에 2만원으로 평년보다 33.2% 오르고 1년 전보다 18.1% 비쌀 것으로 내다봤다.

과일 중 복숭아(전중도백도)는 생산이 감소하고 출하가 지연되면서 도매가격이 4kg에 3만원으로 평년, 1년 전보다 각각 35.2%, 21.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쓰가루)도 생산량이 줄어 10kg에 6만원으로 평년, 1년 전보다 각각 83.0%, 20.6% 비쌀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축산물 중 닭고기 산지 가격은 이달 1kg에 1800원으로 평년보다 8.2% 비싸고 1년 전보다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과 호우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면 가격 상승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 인사이트-업(Insight-Up) 투어'에 참여한 '전남 학생 공공 외교관' 소속 학생 외교관들이 나주 대호저수지에서 EM 흙 공을 만들어 던지고 있다. EM 흙 공은 하천 바닥에 쌓인 영양염류를 분해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농어촌공사, 전남 학생 외교관 농어촌 체험 투어

### 농업 현황·ESG 경영 체험 활동 등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5일 전남교육 꿈 실현재단의 '전남 학생 공공 외교관' 소속 학생 외교관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인사이트-업(Insight-Up) 투어'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 본사와 나주 대호저수지 일대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현황과 공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됐다.

학생 외교관들은 공사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에 대한 위험 관리와 농업인 지원체계 등 공사의 ESG 경영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공사에서 축적한 케이(K)-농공기술이 해외 농업 현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경험했다.

또 이날 공사의 ESG 경영 활동 중 환경에 중점을 둔 현장 체험도 이뤄졌다. 학생 외교관들은 나주시 대호저수지 둘레길을 돌며 환경 정화 활동

'쓰담쓰담(쓰레기 담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학생 외교관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사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EM 흙 공을 만들어 저수지에 던지는 체험 등을 했다.

EM 흙 공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이른바 "작한 세균"을 활용해 만든 발효제와 발효액을 황토와 섞어 공 모양으로 만든 후 발효시킨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 외교관은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공사를 비롯한 많은 분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는 향후 국제기구 파견 직원 인터뷰,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시설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래 세대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